

현대공감이론을 통한 공맹철학의 재조명

프랑스 드 발의 통섭적 공감 이론을 중심으로

이영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원, 정치학 전공

yyoungjae@hanmail.net

- I. 왜, 공감에 주목하는가?
- II. 프랑스 드 발에 대하여
- III. 현대공감이론의 성과와 특징
- IV. 공맹 공감도덕론의 재조명
- V. 맺음말

다소 생경한 이론적 시도에 대해 학문적 격려와 더불어 이 연구의 의미와 과제 등을 세심하게 알려주신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 왜 공감에 주목하는가?

도덕철학사에서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7세기까지 서구 도덕론은 덕성과 도덕을 감정억압적 ‘이성의 사실’로 본 플라톤적·스토아적 합리주의자들과 도덕을 이성의 생산물, 즉 이기심을 통제하는 이성적 ‘협정’이나 ‘계약’에 의해 생산된 ‘인위적 장치’ 또는 ‘인공물’로 정의한 홉스(T. Hobbes), 로크(J. Locke), 맨더빌(B. Mandeville) 등의 네오에피쿠리언 사조가 주도했다.¹⁾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은 인간의 도덕성을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구별된다.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의 도덕론은 홉스나 맨더빌, 헉슬리(T. H. Hexley)와 같이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 사회의 도덕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사조에서 ‘이성’이 자연과 대비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을 치켜세우는 징표였음을 감안하여본다면, 이 도덕감정론은 서양 도덕철학사의 주류 전통과 단절²⁾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덕성과 감정의 단절시대, 인간과 동물의 철두철미한 단절의 시대에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을 대표하는 흄(D. Hume, 1711-1776)은 도덕적 감정의 본유성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동물도 자긍심과 위축감을 가진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동물에게서 그렇지만 특히 고등동물일수록 자긍심과 위축감의 뚜렷한 징표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백조, 칠면조, 공작 등의 실제 행색과 걸음걸이는 이런 동물이 그 자신에 대해 품은 고도의 관념을 보여준다. [...] 말은 빠르기에서, 개는 지능과 후각에서, 황소와 수탉은 힘에서, 그 밖의 다른 동물들은 각자 그들 고유의 뛰어난 점에서 [...] 게다가 인간과 격이 없을 정도로 친숙한 동물은 모두 사람이 인정해주면 명백한 자긍심을 나타낸다.”³⁾ 이에

1) 황태연, 『공자와 세계』 제1권(청계, 2011), 352쪽.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철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병곤, 「Adam Smith의 도덕과 정의」, 『평화연구』 제19권 2호(2011), 227쪽 이하 참조.

2) “17세기 말엽 컴벌랜드, 새프츠베리, 허치슨 등 경험론으로 기운 몇몇 영국 철학자가 주류철학의 빈곤을 느끼고 갑작스럽게 [...] 서양철학 전통에 낯설기 짝이 없는 공감도덕론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갑작스러운 주류철학과의 단절 배경을 “공자주의의 직·간접적 수입”에서 찾는 논의는 황태연, 『공자와 세계』 제1권, 352-384쪽 참조.

3)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with an Analytical Index by L. A. Selby-Bigg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orig. 1740)), p. 326.

더해 흠은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을 말한다. “우리가 긍지와 소심을 느끼는데 필요한 모든 내부원리는 모든 동물에게 공통적이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낳는 원인도 인간이나 동물에게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원인들이 모든 동물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⁴⁾

선형적 판단기준, 즉 신의 의지나 자연법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기초하여 도덕철학을 전개한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큰 충격이었다. 1740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서문)에서 흠이 자신의 추론에 대해 “공연스레 반대하는 일상적 선입견”을 극도로 경계하고, “불모의 바위에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암담한 고독”⁵⁾을 토로한 것은 그 충격파를 짐작케 한다. 특히 인간과 자연(동물)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에 대한 ‘지엄한’ 인간의 탄압은 19세기까지 강고하게 이어졌다. 1860년 옥스퍼드에서 개최된 영국과학진흥회의 모임에서 다윈(C. Darwin, 1809-1882)의 『종의 기원』에 대한 비판 논객이었던 월버포스 주교가 다윈을 지지하기 위해 참석한 헉슬리에게 ‘원숭이 조상이 누구냐?’고 물었던 일화는 유명하다.

이와 같은 도덕철학사의 격변기에 ‘공감(sympathy)’⁶⁾은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의 핵심 키워드였다. 컴벌랜드(R. Cumberland, 1613-1718), 샤프츠베리(A. A. C. Shaftesbury, 1671-1713)는 ‘인애심(benevolence)’ 혹은 ‘이웃에 대한 관심(social nature of mankind)’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 초보적 공감도덕론의 포착 이후 공감이라는 ‘기묘한’ 감정에 대한 관심은 허치슨(F. Hutcheson, 1694-1746)의 ‘도덕감각(moral sense)’을 거쳐, 흠과 스미스(A. Smith, 1723-1790)로 이어졌다. 흠과 스미스는 ‘동정심’, ‘인애심’의 차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또는 입장)을 지각하는 감정으로 ‘공감’을 이해하고, 도덕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다루었다.

왜 도덕철학에서 공감 개념이 이토록 중요한가? 흠은 “미움·분노·존경·사랑·용기·명량함·우울함 이 모든 감정을 나는 내 자신의 자연적 기질과 성향에서보다도 소통으로부터 더 많이 느낀다. 이렇게 현저한

4) *Ibid.*, p. 328.

5) *Ibid.*, p. 264.

6) 이 글에서는 흠과 스미스를 따라 sympathy를 ‘공감’으로 옮기고, empathy를 ‘동감’으로 옮긴다. 다만, 현대공감이론에서 sympathy를 ‘동정심’으로 쓰고, empathy를 ‘공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미맥락에 따라 옮기고 있다.

현상은 우리의 관심을 받을 만하고, 그 제1원리에로까지 추적되어야 한다”⁷⁾고 말한다. 흄은 인간의 사회적 본능의 중요 현상이 공감으로 해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흄은 이 공감 원리가 단순한 하나의 감정수준을 넘어서는 국가 공동체의 제일성의 원리라고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국민 구성원들의 기질과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커다란 제일성을 이 원리 탓으로 돌린다. 이 유사성이-불변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지속될지라도 한 세기 동안 함께 동일한 것으로 한 국민의 성격을 보존할 수 없는-토양과 기후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생기기보다 공감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개연성이 있다.”⁸⁾

스미스는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Part I의 제1장을 “공감(Of sympathy)”에 할애하며,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공유된’ 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스미스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기심과 또 다른 몇몇 원리가 인간 본성에 내재함을 갈파하였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상정될지라도 인간의 본성 속에는 타인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고 타인들의 행복을 보는 기쁨을 제외하고, 이 타인의 행복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이 행복을 그에게 필수적이게 하는 몇몇 원리들이 있다.⁹⁾

공감은 이렇듯 인간의 사회성을 설명할 수 있는 도덕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 글은 이 ‘공감’을 주제로 하여,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철학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대공감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흄과 스미스의 공감 개념은 다윈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대공감이론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동물학’(가령 F. de Waal, E. Wilson, S. Kellert, 최재천), ‘뇌의학’(D. Siegel, G. Rizzolatti, C. Sinigaglia, M. Iacoboni), ‘심리학’(A. Bohart & L. Greenberg, M. Davis), ‘철학’(L. Agosta, A. Vetlesen, M. Stolte, M. Hoffman, G. Deleuze, F. Jullien, 황태연), ‘문명론’(J. Rifkin)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공생, 연대와

7) David Hume, *op. cit.*(1980), p. 317.

8) *Ibid.*, pp. 316-317.

9)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ited by Knud Haakonssen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orig. 1759)], p. 9.

관련한 능력, 교육적·심리학적 효과, 진화적 작용, 뇌의 공감작용 등과 관련한 연구가 학문적 경계를 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⁰⁾

특히 이 글은 현대공감이론 연구자 중 세계적 영장류 학자로 알려진 프란스 드 발(Frans de Waal)의 공감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드 발의 논의로 현대공감이론의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드 발은 영장류 연구자이기는 하지만 최근 심리학 및 사회철학과 통섭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면서 흙, 스미스, 다윈의 공감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각-행동연계 메커니즘(Perception-Action Mechanism, PAM)’¹¹⁾은 공감의 ‘즉각적’·‘반사적’ 작동원리에 관한 해명이다. PAM은 공감을 ‘상상력(imagination)’과 연계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오랜 노력(Hume & Smith)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놀랍게도 드 발의 연구에서 기원전, 그것도 동양의 공맹철학이 핵심 쟁점의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드 발은 영장류 연구와 철학 분야의 통섭(統攝)적 연구를 진행하는 시점(2005년)부터 자신의 연구 곳곳에서 공맹철학을 접목해오고 있다.¹²⁾ 공맹철학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이 동양이 아닌 서구에서, 그것도 진화론적 동물학 연구 분야의 최신에 공감이론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지적

10) 최재천, 『호모심비우스』(이음, 2011); A. Bohart & L. Greenberg(ed.), *Empathy Reconsidered*(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7); Lou Agosta, *Empathy in the Context of Philosophy*(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Arne Etlesen, *Perception, Empathy, and Judgment*(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4); Michele Stolte, *The Ethics of Care and Empathy*(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7); Martin Hoffman,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Jeremy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New York: Penguin Group, 2009).

11) S. D. Preston and F. B. M. de Waal, “The Communication of emotions and the possibility of empathy in animals,” In *Altruistic Love: Science, Philosophy and Religion in Dialogue*, ed. S. G. Post, L. G. Underwood, J. P. Schloss, and W. B. Hurlbu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284-308.

12) 프란스 드 발 저, 이충호 역, 『내 안의 유인원』(김영사, 2009), 287쪽, 291쪽; Frans de Waal, “Morally Evolved-Primate Social Instincts, Human Morality and the Rise and Fall of ‘Veneer Theory’,” In Stephen Macedo and Josiah Ober(ed.), *Primate and Philosopher: How Morality Evolved*(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b), pp. 49-52, p. 57; Frans de Waal, *The Age of Empathy: Nature’s Lessons for a Kinder Society*(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09), pp. 220-221.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필자는 한편으로, 드 발의 연구가 공감의 통섭적 연구를 통해 공맹철학의 현대적 재조명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II. 프란스 드 발에 대하여

1. 통섭적 · 진화론적 공감 연구

드 발의 저술 중 일부가 이미 국내에 번역, 소개되어 있어 드 발이 우리에게 아주 생경한 학자는 아니다. 국내에 번역된 드 발의 저술은 *Chimpanzee Politics: Power and Sex among Apes*(1982 · 1998 · 2007), *Peacemaking Among Primates*(1989), *Bonobo: The Forgotten Ape*(1997), *The Ape and The Sushi Master: Cultural Reflections by a Primatologist*(2001), *Our Inner Ape: A Leading Primatologist Explains Why We Are Who We Are*(2005) 등이다.¹³⁾

영장류 연구는 드 발의 보노보(Bonobo) 연구¹⁴⁾ 이전까지 대부분 침팬지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침팬지 연구는 인간 사회의 남성적 폭력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도구로 활용되어왔다.¹⁵⁾ 그러나 드 발은 기존 침팬지 연구와 달리 보노보 연구를 통하여 영장류에게도 강한 평화적 · 이타적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¹⁶⁾ 드 발의 영장류

13) 프란스 드 발 저, 황상익 역, 『정치하는 원숭이』(동풍, 1995); 프란스 드 발 저, 황상익 · 장대익 역, 『침팬지 폴리틱스』(바다출판사, 2004); 프란스 드 발 저, 김희정 역, 『영장류의 평화 만들기』(새물결, 2007); 프란스 드 발 저, 김소정 역, 『보노보』(새물결, 2003); 프란스 드 발 저, 박성규 역, 『원숭이와 초밥 요리사』(수회재, 2005); 프란스 드 발 저, 이충호 역, 앞의 책.

14) 보노보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위한 모델로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으로, 공감능력이 제일 뛰어난 유인원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DNA 비교는 인간과 보노보가 사회성과 관련된 미소부수체(微小附隨體, microsatellite)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노보와 달리 침팬지는 미소부수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Frans de Waal, "Appendix B: Do Apes Have a Theory of Mind," In Stephen Macedo and Josiah Ober(ed.), *Primate and Philosopher: How Morality Evolved*(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a), pp. 72-73.

15) 남성적 폭력성의 문제를 침팬지 연구를 통해 조망하여 인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설명하는 논의로는 Richard W. Wrangham and Dale Peterson, *Demonic Males: Apes and the Origins of Human Violence*(Boston: Houghton, 1997)이 대표적이다.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영장류 연구에서 드물게 ‘침팬지’ 연구와 ‘보노보’ 연구를 접목하여 보다 다양한 영장류의 본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안의 유인원』(2009)의 서문에서 드 발이 “앞선 연구들과 달리 친척 영장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인간의 행동을 새롭게 조명¹⁷⁾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드 발은 『내 안의 유인원』에서부터 인간 본성에 관한 통섭적 연구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동·생물학과 관련한 진화론 분야에서 공감연구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의 세례를 받은 다윈의 역할이 컸다. 드 발의 통섭적·진화론적 공감연구도 다윈의 진화론적 공감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윈은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의 주장과 같이 도덕성의 기초가 이기성(selfishness) 또는 ‘최대행복원리’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다윈은 “(이기성 또는 최대행복원리에서 도덕성을 도출하는 -인용자) 도덕도출학과(derivative school of morals)와 달리 도덕감각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본능과 동일한 것¹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회적 본능은 확실하게 (다른 개별 타자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용자) 공동체의 일반복리(the general good)를 위해 발달했다. 공감을 포함한 사회적 본능은 언제나 이 지침으로 기능했을 것이다.¹⁹⁾ 다윈의 사회적 본능은 곧 “양심²⁰⁾”이다.²¹⁾ 다윈은 미래 세대에서 사회적 본능이 더 약화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다윈은 사회적 본능의 진화를 가져오는 매개 역할을 이미 흠이 강조하고 있는 ‘습관(custom)’에서 찾는다.²²⁾ “덕스런 습관들이 더 강화되고 전승에 의해 고정될 것으로

16) 프란스 드 발 저, 김희정 역, 앞의 책; 프란스 드 발 저, 김소정 역, 앞의 책 참조.

17) 프란스 드 발 저, 이충호 역, 앞의 책 〈머리말〉 참조.

18) Charles Darwin,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In: Charles Darwin, *Evolutionary Writings*. Edi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James A. Secord(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249.

19) *Ibid*, p. 250.

20) *Ibid*, p. 253.

21) “순간적일지라도 더 강렬한 충동이나 욕망 사이에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 어떤 유혹에 굴복한 뒤에 우리는, 이 경우에 양심이라고 불리는 다른 본능(‘사회적 본능’-인용자)이 불만족일 경우 느껴지는 것과 유사한 불만감을 느낀다.” *Ibid*, p. 253.

22) 다윈은 스미스뿐만 아니라 흠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특히 흠의 영향은 다윈이 진화와 공감의 연결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습관’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각 인간은 곧 그가 그의 동료인간들을 돕는다면 그가 보통 도움을 다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부터

기대해도 된다. 높은 충동과 낮은 충동 간의 투쟁은 덜 가혹하고, 덕성이 승리할 것이다.”²³⁾

다윈의 견해를 따르는 드 발²⁴⁾은 홉스, 스펜서(H. Spencer), 헉슬리처럼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잔인한 짐승이며 문화나 종교, 또는 강한 정부를 통해서만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고 초월할 수 있다고 믿는 견해에 비판적이다. 드 발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도덕철학적 입장과 같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의 본유적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은 이성과 무관한 도덕감정이라고 주장한다. 드 발은 특히 홉스, 스미스, 다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²⁵⁾

이처럼 이성과 감정의 대립 구도에서 본다면 드 발은 정확히 감정의 편에 서 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비도덕적(또는 반도덕적)이기 때문에 야수적이고 이기적 본능을 숨기거나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드 발에게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공감이고, 이 공감은 “특별한 시점에 취해진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진화의 산물”²⁶⁾로 파악된다.

2. 인간의 본성과 도덕의 문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의 형성은 인간 본성적 공감능력으로부터 연원한다는 드 발의 입장과 달리 당시 다윈의 강력한 옹호자로 명성을 날리며 ‘다윈의 불독’으로 불린 헉슬리는 인류가 자연상태에서 조직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문명화됨에 따라 생존경쟁에서 유용하게 작용한 인간의 특성들이 점차 결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헉슬리는 ‘로마네즈 강연(Romanes Lecture)’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터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저급한 동기로부터 그는 그의 동료들 돕는 습관을 획득하게 되고, 인애적 행동을 수행하는 습관은 확실히, 인애적 행동에 첫 충동을 주는 공감의 느낌을 강화해준다.”(*Ibid.*, p. 259). “우리의 감정을 증감시키는 데 가장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습관과 반복이다. 습관이 정신에게 미치는 근원적 영향 중 한 가지는 어떤 행동을 수행하거나 어떤 대상을 표상할 때 수월성을 제공하는 것이다.”(David Hume, *op. cit.*, 1980, p. 422).

23) Charles Darwin, *Ibid.*, p. 254.

24) 드 발은 그의 Tanner Lectures에서 다윈의 *The Descent of Man* 제5장에 맞추어 10여 년에 걸친 연구를 정교화하였다. Philip Kitcher, “Ethics and Evolution: How to Get there from There,” In Stephen Macedo and Josiah Ober(ed.), *Primate and Philosopher: How Morality Evolved*(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 121.

25) 키처는 이를 “홉스와 스미스의 매혹(lure)”이라고 표현하였다. *Ibid.*, p. 125.

26) Frans de Waal, *op. cit.*(2006b), p. 5.

사실 문명인은 원숭이와 호랑이의 속성에서 비롯된 모든 충동에 죄악이라는 오명을 씌웠으며, 이러한 충동에서 기인한 많은 행동을 범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경우 인간은 이전 시대 최적의 생존자를 도끼와 밧줄로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²⁷⁾

헉슬리에게 ‘자연상태’는 ‘원시적’인 것이다. 사회진화에 끼치는 우주과정의 영향력이 클수록 그 문명은 ‘원시적’이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한 덕목(이른바 선이나 미덕)의 실천은 무자비한 자기주장을 대신하여 자기억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헉슬리는 다윈의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을 ‘검투사적 생존이론’으로 해석한다.²⁸⁾ 다윈과 교감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려진 스펜서도 다윈의 자연선택을 ‘적자생존(the survival of the fittest)’으로 해석한다.²⁹⁾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이 이렇게 일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드 발은 스펜서와 헉슬리의 해석이 반(反)다윈주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재천도 “다윈의 이론이 갖는 의미는 경쟁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한 종이라는 것을 밝힌 것”³⁰⁾이라고 해석하며, 드 발과 같이 공생의 능력을 강조한다.

실제로 적자생존의 극단적 귀결이 ‘우생학’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감안해본다면, 『종의 기원』의 집필부터 다윈이 고민하며 연구했던 인간 사회에 대한 자연선택의 원리 적용(The Descent of Man)은 다윈의 입장이 적자생존으로 귀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왜 외과의사가 자기를 혹사하며 수술하는지, 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윈의 견해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우생학’과는 거리가 멀다. 다윈은 “외과의사는 환자의 복리를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알기에 수술을 시술하는 동안 자기를 혹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약자들과 사고무친한 자들을 버린다면, 그것은 확실하고 커다란 현재의 악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연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27) Thomas H. Huxley, *Evolution and Ethics—The Romanes Lecture*(1894), 토머스 헉슬리 저, 이종민 역, 『진화와 윤리』(산지니, 2012), 62쪽.

28) 토머스 헉슬리 저, 이종민 역, 위의 책, 100쪽.

29)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는 것은 다윈이 『종의 기원』 제5판(1868)에서 스펜서의 ‘적자생존’이 곧 ‘자연선택’과 같은 의미라고 밝힌 점뿐만 아니라 『종의 기원』 곳곳에서 ‘투쟁’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진화생물학 진영에서 다윈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30) 최재천, 앞의 책, 11쪽.

따라서 우리는 살아남아서 그들 같은 종자를 퍼트리는데, 의심할 바 없이 나쁜 효과를 불평하지 않고 감내하는 것³¹⁾이 필요하다.

반면에 헉슬리는 자연상태(state of nature)와 인공상태(state of art)를 구분하고, 문명상태를 '정원사'에 의해 잘 가꾸어진 '정원'에 비유한다. 이 정원에는 식물을 조성하고 정원을 유지하는 인간(정원사-인용자)의 에너지와 지능의 작동이 개입되는데, 이게 자연상태와 다른 인공상태(정원)의 특징이다. 정원사는 자연적 본성, 즉 '잡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원에서 자연상태의 경쟁은 소멸한다.³²⁾

드 발은 헉슬리가 인간의 본성을 아귀다툼하는 것인 양 가공해내고, 그 본성 위에 얹은 도덕적 치장막을 둘러 이를 역제시시켜야 도덕적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드 발은 이를 '치장도덕론(Veneer Theory)'이라고 명명한다. 드 발은 '다윈의 불독'이 다윈을 오독했다며 반론을 전개한다. "첫째, 헉슬리의 설명은 진화적 설명력에 재갈을 물린 격이다. 결국 (헉슬리에 따르면-인용자)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반대함으로써만 도덕적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헉슬리가 갈구하는-인용자) 인류가 그 자신의 본성을 물리칠 힘을 도대체 어디서 발굴할 수 있는가? 헉슬리는 답을 하지 못한다."³³⁾

드 발에 따르면, "진화는 동물들이 홀로 다른 동물들과 경쟁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이익들보다 서로 도움으로써 더 큰 가치의 장기적 이익을 얻는다면 서로를 돕게 되고, 자연은 이 동물들을 각별히 편들어준다."³⁴⁾ 즉, "자연선택은 타자들의 감정상태를 평가하고, 이 상태에 재빨리 반응하는 기제를 편든다."³⁵⁾ 이러한 드 발의 입장을 다윈주의로 간주한다면, 헉슬리의 주장은 반다윈적인 것이 되고 만다. "다윈은 도덕성을 진화의 산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인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고, 문화적으로 부과된 인공적 도덕성을 믿는 헉슬리와 그 추종자들의 세계보다 생존 가능성이 월등하게 더 높은 세계를 비전으로 떠올렸다."³⁶⁾ 다윈은

31) Charles Darwin, *op. cit.*, p. 262.

32) 이 내용은 로마네즈 강연의 보론으로 헉슬리가 별도로 집필한 *Evolution and Ethics-Prolegomena*(1894)에서 피력된 유명한 '정원과 정원사'의 비유이다. 토머스 헉슬리, 앞의 책, 139-184쪽.

33) Frans de Waal, *op. cit.*(2006b), pp. 6-8.

34) *Ibid.*, pp. 13-14.

35) *Ibid.*, pp. 26-27.

36) *Ibid.*, pp. 16-17.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잘 두드러진 사회적 본능을 부여받은 어떤 동물이든 부모와 새끼들의 애정이 여기에 포함되기에 동물의 지성적 능력이 마찬가지로 발전하자마자 또는 거의 인간에게서만큼 발전하자마자 불가피하게 도덕감각이나 양심을 획득할 것이다.³⁷⁾

결국 드 발의 다윈 해석에 따르면, 도덕과 정의의 문제가 인간 본성으로 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공감능력으로 인해 인간이 도태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드 발은 “이 진화적 기원의 설명이 전혀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코끼리에서 늑대와 사람에 이르기까지 협업에 의존하는 모든 종자는 집단충성심(group loyalty)과 돕는 성향(helping tendencies)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향은 호의를 되갚을 수 있는 친족들과 동료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밀접하게 짜여진(close-knit) 사회생활의 맥락에서 진화했다.”³⁸⁾ 이와 같은 드 발의 입장은 인간 본성적 공감도덕론을 전개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의 도덕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III. 현대공감이론의 성과와 특징

1. 현대경험과학의 통섭적 ‘공감’ 연구

현대경험과학의 공감연구는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연구와 뇌의학, 동물학 등의 통섭적 연구가 특징이다. 현대공감이론의 통섭적 연구 성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 자신과 타자를 구별하는 지각 능력과 남의 정신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을 확인한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이다. 마음이론은 1970년대 멘젤(Menzel)의 유명한 영장류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멘젤은 어린 침팬지들을 큰 울타리 밖에 풀어두고 그중 한 마리만 음식(또는 장난감 뱀)을 숨겨둔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동료 침팬지들은 ‘(이미) 알고 있는

37) Charles Darwin, *op. cit.*, pp. 71-72.

38) Frans de Waal, *op. cit.*(2006b), p. 15.

침팬지의 행동에 기초해서 음식을 어디에 감추어두었는지 ‘추측(guessing)’할 수 있었다.³⁹⁾ 프리맥(Premack)과 우드러프(Woodruff)는 이 ‘추측자-인지자(Guesser-versus-Knower)’ 패러다임을 차용하여 ‘마음이론’을 제시하였다.⁴⁰⁾ 침팬지 연구에서 마음이론과 관련한 관찰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샌디에고에 있는 오래된 보노보 사육장 주변의 2미터 깊이의 해자를 청소하기 위해 물을 빼냈다. 청소를 끝내고 보노보들을 자유롭게 풀어준 뒤에 물을 채우기 위해 밸브를 돌리려 하자 그 순간 갑자기 나이 많은 수컷 카코웨트가 유리창으로 다가와 울부짖으며 사육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친 듯이 팔을 흔들었다. 이곳에서 오래 살아온 카코웨트는 청소작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어린 보노보 여러 마리가 물 빠진 해자로 내려가 놀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사육사들이 사다리를 내려주었다. 가장 작은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빠져나왔다. 그 가장 어린 한 마리는 카코웨트가 직접 끌어올렸다.⁴¹⁾

이 사례는 ToM의 ‘관점수용(perspective taking)’을 보여주고 있다. 관점수용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마음이론에서 ‘목표지향적 도움(targeted helping)’도 중요하게 거론되는데, 목표지향적 도움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짐작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ToM은 교육학 분야에 집중되어 아동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심리학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생물학 분야의 DNA 발견에 버금가는 개가(凱歌)’로 평가되는 ‘거울뉴런(mirror neuron)’의 발견이다. 거울뉴런의 발견은 현대 공감연구가 입증한 중요한 성과이다.⁴²⁾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거울뉴런은 전두엽 전운동피질 아래쪽, 두정엽 아래쪽, 측두엽 뇌성엽 앞쪽 등 뇌의 3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울뉴런을 발견한 이후

39) E. W. Menzel, “A group of young chimpanzees in a one-acre field,” In *Behavior of Non-human Primates*, ed. A. M. Schrier and F. Stollnitz, vol. 5(New York: Academic Press, 1974), pp. 83-153.

40) D. Premack and G. Woodruff, “Does the chimpanzee have a theory of mind?,” *Behavioral & Brain Science* 4(1978), pp. 515-526.

41) Frans de Waal, *op. cit.*(2006b), p. 71.

42) V. S. Ramachandran, “MIRROR NEURONS and imitation learning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great leap forward” in human evolution,” *Edge* 69(2001), Available at From the Third Culture: http://www.edge.org/3rd_culture/2012/02/23 검색. p. 1.

인간의 뇌에서 거울뉴런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⁴³⁾, 우리가 어떻게 타자들과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⁴⁴⁾ 거울뉴런의 발견으로 ‘공감’ 감정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세 번째 성과는 공감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힌 프레스톤과 드 발의 ‘지각-행동 연계 메커니즘(PAM)’ 연구이다. PAM은 오랜 논구과정에서 해명되지 않았던 공감의 작동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PAM에서 확인된 공감 작동 메커니즘의 특징은 ‘자동성’에 있다. 프레스톤과 드 발은 공감적 역량의 핵심에는 관찰자(observer)(주체, the ‘subject’)에게 관찰자 자신의 신경적·신체적 재현(representation)을 통해 타자(another)(객체, the ‘object’)의 감정적 상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비교적 단순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제기한다.⁴⁵⁾ 주체(관찰자-인용자)가 객체의 상태에 유의할 때, 객체와 유사한 상태로의 신경적(neural) 재현은 ‘자동적으로(automatically-강조 인용자)’ 활성화된다.⁴⁶⁾ 즉, 지각(perception)과 행동(action)이 재현을 공유하는 것이다.⁴⁷⁾

이 ‘자동성(즉각성)’ 원리는 공감의 작동원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발견이다. 주지하다시피 스미스의 공감 작동 메커니즘은 ‘상상력(imagination)’이다. 스미스는 우리가 타인이 느끼는 고통, 기쁨, 분노 등을 공유하게 되는 데는 상상력을 통한 감정이입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감은 당신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즉 역지사지(imaginary change of situation)하여, 내가 당신의 처지에 있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게 될지를 상상하는 것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⁴⁸⁾

43) G. Rizzolatti & C. Sinigaglia, translated by F. Anderson, *Mirrors in the Brain-How Our Minds Share Actions and Emotion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44) M. Iacoboni, *Mirroring People*(New York: Picador, 2008).

45) S. D. Preston & F. B. M. de Waal, “The communication of emotions and the possibility of empathy in animals,” pp. 284-308.

46) Frans de Waal, *op.cit*(2006b), p. 37.

47) 드 발은 지각과 행동이 재현을 공유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구상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Einfühlung*, 즉 “empathy”로 영역된 독일어 개념에 관한 최초의 논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심리학자 립스가 말한 ‘감정이입(feeling into)’, *Einfühlung*이 그것이다. 드 발이 제시한 립스의 논문은 T. Lipps, “Einführung, innere Nachahmung und Organempfindung,” *Archiv für die gesamte Psychologie* 1.(1903)이며, 드 발은 립스가 PAM에 의해 제기된 것과 같은 선을 따른 타인의 느낌들의 내적 모방(*innere Nachahmung*)에 대해 사색한 것이라고 말한다. Frans de Waal, *Ibid*, p. 38.

48) Adam Smith, *op. cit*, VII. III. I. 4.

스미스의 공감 작동 메커니즘은 내가 타인의 입장으로 전환하여 그 입장을 상상력을 통해 상상하는 이원구조이다. 흄이 스미스와 같이 명확한 이원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흄도 상상력을 공감작동의 주요 원리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흄은 “공감이 언제나 현재의 한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지 않는, 우리가 상상력에 의해서만 예상할 뿐인 타인들의 고통과 기쁨을 전달에 의해 자주 느낀다는 것은 확실하다”⁴⁹⁾고 말한다. 공감이란 “상상력의 힘을 통해 관념을 인상으로 전환하는 것”⁵⁰⁾이다. “다른 사람의 현재 감정을 마치 내가 느끼듯이 생생한 관념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인용자)다.”⁵¹⁾

상상력은 즉각적·자동적 반응이 아니라 상당한 정신작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감의 자동성 원리와 구별된다. PAM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감은 ‘인간의 얼굴표정 그림실험’에서 그림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 얼굴의 불가시적 근육수축에 대한 근전도검사(筋電圖檢査, electromyographic) 연구에 의해 증명된 것과 같은, ‘기계적인 비자발적 과정’(routine involuntary process, 강조-인용자)을 특징으로 한다. 이 반응들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간 그림에서도, 즉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자동화된 반응은 일어난다.⁵²⁾ 드 발은 “공감을 더 높은 인식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의식적 통제하에 둘 수 없는 이 본능적(충동적) 차원의 반응을 무시하는 것”⁵³⁾이라고 지적한다.

이 ‘지각-행동 기제’는 ‘운동신경적 지각(motor perception)’으로 잘 알려져 있고⁵⁴⁾, 연구자들로 하여금 감정 지각을 밀받침하는 유사한 과정을 추정하게 해준다.⁵⁵⁾ 이 연구 데이터들은 감정을 관찰하는 것과

49) David Hume, *op. cit.*(1980), p. 385.

50) *Ibid.*, p. 427.

51) *Ibid.*, p. 386.

52) U. Dimberg, “Facial Electromyographic Reactions and Autonomic Activity to Auditory Stimuli,” *Biological Psychology* 31(1990), pp. 137-147; U. Dimberg, M. Thunberg, & K. Elmehed, “Unconscious facial reactions to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Psychological Science* 11(2000), pp. 86-89.

53) Frans de Waal, *op. cit.*(2006b), p. 37.

54) W. Prinz and B. Hommel, *Common Mechanism in Perception and A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경험하는 것 모두 공유된 심리적 기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타인의 역겨움이나 고통감을 보는 것(seeing)은 역겨움이나 고통감에 처해 있는 것(being)과 아주 많이 유사하다. 그리고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은 주체와 객체에게 유사한 심리상태를 창출한다. 인간의 심리활동과 신경활동은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밀하게 동지적 인간들과 연관되어 있고, 이 인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⁵⁶⁾

프레스톤과 드 발의 'PAM'은 다마시오(Damasio)의 신체적 표시 가설⁵⁷⁾과도 부합하고 지각과 행동 사이의 세포 차원의 연결에 대한 최근 증명인 '거울뉴런'과도 부합하고 있다⁵⁸⁾는 점에서 현대경험과학에서 입증된 공감연구의 성과와 궤를 같이하며, 공감연구의 한층 진전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대공감이론에 등장한 공맹철학

현대공감이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동·서 비교철학적 연구의 접목이다. 서구중심주의에 취한 동양에서 한낱 고리타분한 구태로 홀대받기도 하는 공맹철학이 현대공감이론을 통해 공감도덕론의 정수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줄리앙(Jullien)은 도덕철학의 근본 문제로 맹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제기하고, 칸트와 니체, 루소, 쇼펜하우어 등과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줄리앙은 '측은지심'을 공감감정의 대표적 예로 활용하며, 루소의 '동정심'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칸트의 도덕철학과 맹자의 '사단(四端)'을 비교하였다. 공교롭게도 루소의 동정심에 대한 줄리앙의 검토는 PAM의 공감 작동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루소는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입장이 되게 하며,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하다고 느끼는 원리를 상상력에서

55) V. Gallese, "The 'Shared Manifold' Hypothesis: From Mirror Neurons to Empathy," E. Thomson(ed.), *Between Ourselves: Second-Person Issues in the Study of Consciousness*(Thoverton, UK: Imprint Academic, 2001); D. M. Wolpert, et al., "Perspectives and Problems in Motor Learn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5(2001).

56) Frans de Waal, *op. cit*(2006b), pp. 37-38.

57) A. Damasio,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New York: Putnam, 1994).

58) Frans de Waal, *op. cit*(2006b), pp. 37-38.

찾는다.⁵⁹⁾ 줄리앙은 이와 같이 상상력을 작동원리로 하는 동정심은 그 사람이 겪는 비참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만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루소의 동정심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것이 되고 만다.⁶⁰⁾ 줄리앙은 맹자의 ‘불인(不忍)의 반응’이 ‘자연발생성’과 ‘무조건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파악한다.⁶¹⁾ 이러한 줄리앙의 공감 해석은 앞서 살펴본 현대경험과학의 공감 작동 메커니즘과 부합하는 해석이다.⁶²⁾

영장류 학자인 드 발이 공맹철학을 공감원리의 핵심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은 흥미롭다. 드 발은 공자의 논의로부터 도덕의 황금률(Golden Rule)을 도출한다. 드 발은 도덕과 관련하여 상호성을 강조하는데⁶³⁾, 우의적이거나 보복적인 감정(friendly or vengeful emotions), 즉 웨스터마크가 강조한 응보적 감정(retributive emotion)이 공자의 ‘愆’ 개념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드 발은 종신토록 행할 만한 한마디가 있느냐는 자공의 물음에 대한 공자의 답, ‘愆’를 교호성(reciprocity)으로 해석한다.⁶⁴⁾

“이 교호성은 물론 황금률의 심장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전히 인간 도덕의 총괄로서 초극되지 않는 것이다.” 드 발에 따르면, 공자의 ‘愆’가 곧 도덕의 황금률이다. 또한 드 발은 “이 룰의 배후에 있는 심리의

59) “내가 보고 있는 고통은 내 안이 아니라 상대방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J. J. Rousseau, *Émile ou de l'Éducation*(Paris: Garnier, 1961); 프랑수아 줄리앙 저, 허경 역,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 루소, 칸트』(한울, 2004), 44쪽. 재인용.

60) 프랑수아 줄리앙 저, 허경 역, 위의 책, 45쪽.

61) 위의 책, 51쪽.

62) 공감에 대한 줄리앙의 이와 같은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필자가 줄리앙의 공맹철학 해석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줄리앙은 공맹철학에 ‘자유’가 부재하다는 해석을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 루소, 칸트』 제4부(145-182쪽)에서 전개한다. 이는 줄리앙이 비교철학적 연구를 통해 공맹철학의 뛰어난 해석적 주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공맹철학의 인식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한계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는 공맹철학의 인식론을 ‘해석적 경험론’으로 재조명하고, 서양철학과 광범위한 비교철학적 연구를 진행한 황태연, 『공자와 세계』 제1-5권(청계, 2011)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맹철학의 인식론 관련 부분은 『공자와 세계』 제1권 제2부 제1장 ‘공자의 인식론과 주체론’ 187-253쪽. 참조.

63) 도덕은 남을 돕거나(Helping), 해를 끼치는 것(Hurting)과 관계가 있다. 이 두 H는 서로 관련이 있다. 만약 의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상 그에게 해를 끼치는 셈이다. 비록 도덕적인 문제로 포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H와 관련 없는 것은 도덕 영역 밖의 문제이고, 단순한 관습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수아 드 발 저, 이충호 역, 앞의 책, 289쪽.

64) 이 원문은 〈衛靈公〉편에 있다.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어떤 것이 그 필요한 공감과 함께 다른 종자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도덕성이 최근의 고안물이 아니라 차라리 인성의 일부라는 사상을 보장해준다”⁶⁵⁾고 말한다.

반면에 공감과 관련한 설명에서 드 발은 우리가 스스로의 도덕적 선택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지극히 미미함을 강조하며, 맹자의 측은지심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웨스터마크(E. Westermarck)를 인용한다. “몸이 불에 닿았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친구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이 현상들이 경험의 주관적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덜 필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⁶⁶⁾ 드 발은 웨스터마크의 이 반어적 논박을 맹자의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의 예로 풀어낸다.

만약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누군들 놀라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이의 부모에게서 사례를 기대해서도 아니고,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며, 그 일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는 오명을 두려워해서도 아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측은지심 (the feeling of commiseration)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이란 걸 알 수 있다.⁶⁷⁾

기원전 동양의 맹자가 드 발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드 발은 “다윈과 웨스터마크 이전에도 도덕감정을 강조한 스코틀랜드 철학자 흄이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3세기에 살던 중국의 맹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죽간(竹簡)에 기록돼 후대로 전해진 그의 교훈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얼마나 작은지 일깨워준다”⁶⁸⁾고 밝히고

65) Frans de Waal, *op. cit.*(2006b), p. 49.

66) E. Westermarck,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Moral Ideas*, vol. 2. 2nd ed.[London: Macmillan, 1917(1908)], Frans de Waal, *op. cit.*(2006b), p. 49. 재인용.

67) Mencius n.d.[372-289 BC]; 78., Frans de Waal, *op. cit.*(2006b), p. 51. 재인용.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孟子』〈公孫丑上〉(3-6).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사람은 다 불인인(不忍人)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소이는,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막 빠지는 것을 보았다면 깜짝 놀라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이의 부모와 사귀려는 마음 때문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한테 칭찬을 구하기 때문도 아니며, 그 아이의 소리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非惡其聲而然也). 국역은 황태연의 미간행 〈독서노트 V : Empathy〉(2012), 24쪽.

68) 프란스 드 발 저, 이충호 역, 앞의 책(2009), 287쪽.

있다. 멀리 돌아 맹자를 접한 드 발은 공감의 중요한 원리를 맹자의 논의에서 다시 발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드 발의 공감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맹자의 공감감정에 대한 예-인용자)보다 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다(“I could not agree more”).”⁶⁹⁾

줄리앙은 동양학부 교수로서 자연스럽게 공맹철학에 흥미를 가졌을 것이라는 개연적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류 연구자인 드 발이 어떠한 경로로 공맹철학을 접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⁷⁰⁾ 다만 16-17세기 공자철학 수입⁷¹⁾ 이후 서양에서 공맹철학이 ‘목욕물과 함께 버려진 것이 아니라’ 현대공감이론 연구자들에게 재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최소한 밝혀진 셈이다.

IV. 공맹 공감도덕론의 재조명

1. 공감의 본유성과 도덕의 단초

과연 인간의 본성은 헉슬리의 주장과 같이 정원의 ‘잡초와 같은 것인가?

69) Frans de Waal, *op. cit.*(2006b), p. 51.

70) 줄리앙이 인용하고 있는 공맹저술은 19세기 말 세라핀 쿠르뵈(Séraphin Couvreur)가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번역한 *Cathasia, Les Bells Lettres*이다. 드 발은 Mencius, n. d.(372-289 BC). *The Works of Mencius*, English translation by J. Legge, 1895(orig. Fourth century B.C.). Oxford, UK: Clarendon을 인용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자들이 공맹철학의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 착안해본다면, 드 발이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의 공감도덕론을 접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흄은 ‘맹자의 우물에 빠지는 아이의 예’와 유사한 ‘말발굽에 밟히게 될 사람의 예’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Political Essays*에서는 공맹 저술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David Hume, *Political Essays*, Edited by Knud Haakonsson[Cambridge · New York ·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1st 1994)], p. 49, p. 66, p. 286.

71) 계몽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영국 명예혁명 전까지 유교의 사서(四書)와 『주역』, 『효경』, 『소학』은 대충 라틴어 등으로 다 번역된 상태였다. 중국을 극적으로 유럽인의 관심 대상으로 만든 회기적 유교 경전 번역서는 인토르케타, 쿠플레, 헤르트리시, 루쾨몽 등 4명의 예수회 선교사가 루이 14세의 칙령에 따라 『논어』, 『대학』, 『중용』, 『맹자』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중국 철학자 공자 또는 중국 학문(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Paris, 1687)이다. 이 책은 1688년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1691년에는 이 프랑스어본을 대본으로 한 영어 축약본이 나왔다. 이 책은 프랑스어, 영어 이외에도 몇 개의 유럽어로 번역되어 나갔고, 요약본까지 출판될 정도였다. 황태연, 『공자와 세계』 제1권, 425-437쪽.

드 발은 〈告子上〉(권11)편을 인용하며 고자(告子, Kaou Tsze)의 견해가 혁슬리의 정원의 비유를 상기시키는 반면⁷²⁾, 맹자의 응수는 인간들이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선(善, goodness)을 지향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A) 고자가 “인간의 천성은 기(杞, ke) 버드나무와 같고, 의(義, righteousness)는 소쿠리(cup or bowl)와 같다. 인성을 인의(仁義)로 여기는 것은 버드나무로 소쿠리를 만드는 것인가”라고 묻자, 맹자는 “그대는 버드나무를 상하게 한 뒤에 소쿠리를 만드는가? 만약 버드나무를 상하게 하여 소쿠리를 만든다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인의로 여기는가?”라고 반문한다.⁷³⁾ B) 또 고자가 인성이란 동으로 트면 동으로 흐르고 서로 트면 서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인성이 선과 불선의 구분이 없는 것은 물이 동서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자, 맹자는 “물이 진짜 동서 구분이 없지만 상하 구분도 없는가?”라고 반문하고 “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사람은 불선이 없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다. 지금 물을 때려 튀게 하여 이마를 지나치게 하고 부딪혀 가게 하여 억지로 산으로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물의 성질이겠는가? 사정이 이런 것이다. 사람이 불선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성은 이 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갈파한다.⁷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억지로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람은 불선이 없지만 설령 불선하게 만들어지더라도 그 본성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다. 공감감정은 바로 이 물과 같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 이 공감의 본유성은 스코틀랜드 공감도덕론의 중심축으로 견지되었다. “다른 사람

72) 고자는 “인성이란 동으로 트면 동으로 흐르고 서로 트면 서로 흐르는 물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혁슬리의 본성은 정원사가 제거해야 할 자연상태의 잡초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의 견해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드 발의 견해는 고자의 논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한계로 보인다.

73) Frans de Waal, *op. cit.*(2006b), p. 50.

74) A)는 드 발의 “Morally Evolved-Primate Social Instincts”에 제시된 인용문이고, B)는 인용문에서 생략된 告子上(권11)에 있는 내용을 필자가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告子曰 性猶杞柳也 義猶枏櫨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枏櫨. 孟子曰 子能順杞柳之性而以爲枏櫨乎? 杞柳而後以爲枏櫨也. 如將戕賊杞柳而以爲枏櫨 則亦將戕賊人以爲仁義與?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 必子之言夫! 告子曰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搏而躍之 可使過頽 激而行之 可使在山. 是豈水之性哉? 其勢則然也. 人之可使爲不善 其性亦猶是也. ※ 드 발은 枏櫨(베귀), 즉 소쿠리를 ‘cup or bowl’로, 버드나무 杞를 Ke로 옮기고 있다.

들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향(inclinations)과 감정(sentiments)이
우리와 다르거나 심지어 반대되더라도 전달에 의해 수용하는 우리의
이 성향(propensity)은 그 자체에나 그 귀결에서 가장 현저한 인간 본성의
자질(quality)이다.”⁷⁵⁾ 또 흄은 공감이란 이성적 능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본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성향은 다른 사람이 제안한
의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고도의 판단력과
지성을 갖춘 어른에게서도 현저하게 나타난다.”⁷⁶⁾

스미스도 “연민(pity)이나 동정심(compassion) 같은 공감감정이 인간
의 본성(nature)”임을 천명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감정은 인간 본성 중의 기타 모든 원시적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도덕적이고 인자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무도한
폭도들과 가장 냉혹한 범죄자들에게도 이러한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⁷⁷⁾

공감의 본유성에 대한 흄과 스미스의 견해는 정확히 맹자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공감감정은 어린아이, 어른, 심지어 가장 냉혹한 범죄자들
에게도 있는 것이다. 드 발의 연구에 의하면, 이 공감감정은 영장류에게서
도 발견된다. 공감감정의 본유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공감감
정과 도덕론의 관계일 것이다. 공감감정은 항상 선한가? 그렇지 않다.
공감의 작용이 곧 도덕적으로 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질시’, ‘위축감’ 등을 그 자체로 도덕적 선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공감의 작동 메커니즘은 ‘불쾌감’, ‘비호감’, ‘반감’ 등도 만들어낸다. 스미스
는 “증오와 분노의 감정 또한 인간 본성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말한다. 분노할 때 분노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비굴함을 맛보게 된다.
“우리는 실제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뿐만 아니라 비열한 행동에도 분노를
느낀다.”⁷⁸⁾ 그렇다면 공감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감정의
작용이지, 그 자체를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공맹철학의 탁월함은 공감의 본유성 논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감정의 표출을 위해 한 단계를 더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공맹철학에

75) David Hume, *op. cit.*(1980), p. 316.

76) *Ibid.*, p. 316.

77) Adam Smith, *op. cit.*, I. I. I. 1.

78) *Ibid.*, II. III. 3.

서 공감감정은 도덕적 선함을 위한 '단초'이다. 이 단초가 '확충'과 '수신'을 통하여 선한 도덕적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다. 공자의 사덕(四德: 仁·義·禮·智)과 맹자의 사단지심(四端之心)은 도덕적 단초로서의 공감감정과 확충을 통한 도덕적 행위의 연관을 제시해준다.⁷⁹⁾ 도덕적 단초와 확충의 원리가 결합될 때, 비로소 선한 도덕적 행위가 표출될 수 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지심(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⁸⁰⁾라고 말한다. 즉, 사단지심은 사람에게 본유하는 것이다. 이 사단지심은 四德인 ‘仁·義·禮·智’의 단초다. “측은지심은 仁의 단초고, 수오지심은 義의 단초고, 사양지심은 禮의 단초고, 시비지심은 智의 단초다(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이 단초가 자동적으로 선한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씨앗을 곧 나무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도덕적 단초는 ‘확충’과 ‘수신’을 필요로 한다. 이 확충과 수신은 특정한 능력을 보유한 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릇 자아에 사단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이것을 확충할 줄 안다.” 이 확충은 “이는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이 처음 솟는 것(火之始然 泉之始達)과 같다.” 또한 이 도덕적 단초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확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 단초는 선한 도덕적 행위로 표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것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실로 이를 확충할 수 있으면 사해를 죽히 보전할 수 있으나, 실로 이를 확충하지 못한다면 부모도 죽히 모실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공맹철학의 공감도덕론은 공감을 선한 도덕적 단초로 포착함과 동시에 이 단초가 도덕적 행위로 표출되기

79) 이상호는 四端之心이 객관화될 수 있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도덕철학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四端之心 전체를 ‘이타적 정감’, ‘선한 정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상호, 『사단칠정 자세히 읽기』, 글항아리, 2011, 39-45 쪽). 왜냐하면, 是非之心은 四德 중 智德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공감감정과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맹자가 是非之心을 智의 단초로 제시하는 것과 결부해보자면 是非之心은 오늘날 시비(是非)의 의미와 달리 알고 싶은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궁금증’ 또는 ‘호기심’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흄도 직접감정을 논하는 장에서 이 호기심을 다른 원리에서 유래되는 감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간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는 호기심은 전혀 다른 원리에서 유래되는 감정이다”(David Hume, *op. cit.*, 1980 p. 453).

80) 『孟子』〈公孫丑上〉.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仁也.

위해 필요한 확충과 수신의 원리를 ‘인위적 억압의 원리’(헉슬리)가 아닌 ‘자연성’, ‘평등성’의 원리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2. 현대공감이론과 공맹철학의 조응

현대공감이론 덕분에 공맹철학의 보다 풍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대경험과학 분야에서 밝힌 공감의 원리는 공맹의 공감도덕론을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17-18세기 서구의 공감도덕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그 의미가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던 공맹철학의 공감도덕론이 현대공감이론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공감이론과 공맹철학의 조응은 공감의 ‘자동성 원리’와 ‘작용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주제는 스코틀랜드 공감도덕론에서 관심 있게 탐구되던 핵심 논제들이기도 하다.

먼저, PAM 원리로 밝혀진 공감의 ‘자동성’ 원리와 공맹의 공감원리를 비교해보자. 앞서 제3장 2절에서 검토한 맹자의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측은지심’은 ‘상상력의 힘’(Hume & Smith)을 빌려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자동적’으로 작용한다. “깜짝 놀라” 우리의 신체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맹자는 이 반응이 별도의 사유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본능적 반응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이 반응은 부모의 사례를 기대해서도 아니고, 이웃과 친구들의 칭찬을 기대해서도 아니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오명을 두려워해서 작동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맹자의 사례와 흡사한 흠의 예시 또한 공감의 자동성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판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말들의 말굽에 의해 짓밟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하면, 나는 ‘즉시(강조-인용자)’ 그를 도우러 달려갈 것이다.⁸¹⁾

아예 ‘상상력의 힘’을 공감의 작동원리로 삼는 스미스도 공감의 이러한 ‘자동성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다리나 팔을 칼로 찌르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강조-인용자)’ 몸을 움츠리거나 다리나 팔을 뒤로 빼게 된다 [...] 느슨한

81) David Hume, *op. cit.*(1980) p. 386.

बाट 줄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강조-인용자)' 몸을 비틀어 꼬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다."⁸²⁾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처지나 고통에 투영되어 그 고통을 체감하고, 그 고통을 다시 나에게 전송할 시간적 여유나 복잡한 이성의 합리화 작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드 발은 공감의 자동성 원리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는 공감의 작동과 관련하여 “충동이 먼저고 합리화는 나중(impulses in this regard come first and rationalization later)”⁸³⁾이라는 맹자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맹자의 이 설명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를 따르는 풍부한 문헌이 존재한다고 부연하고 있다.⁸⁴⁾ 공감의 자동성 원리는 흄의 유명한 테제, 즉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감정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역할도 탐낼 수 없다”⁸⁵⁾는 언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충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의 사후조치를 위해 이성의 사유가 작동한다는 맹자의 설명을 흄의 언어로 압축하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Reason is, and ought only to be the slave of the passions)”라는 말이 될 것이다.

둘째, 공감감정의 작용 속성에 관한 것이다. 이성을 후발주자로 끌고 가는 감정, 즉 공감적 충동은 어떠한 작용적 속성원리를 갖는가? 공감감정의 작용 속성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 감정의 작용과 관련한 흄의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접감정에 대한 설명에서 흄은 “반복”이 “수월성” 낳는다고 말한다.⁸⁶⁾ 반복을 통한 수월성은 우리에게 이성적 사유작용이 필요치 않은 익숙한 경험, 즉 “친숙함”으로 다가온다. 우리 “감정은 친숙한 것에 강하게 반응한다.”⁸⁷⁾ 그리고 이 친숙함을 주체가 맺는 관계 속으로

82) 그러나 스미스는 공감의 자동성 원리를 중국에는 '상상력의 힘'에 의존하여 설명하고 있다. 스미스는 “사람들은 춤추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 자신이 그의 처지에 있다면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 A.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 I, I, 3.

83) Frans de Waal, *op. cit*(2006b), p. 52.

84) C. D. Baston, “How social an animal? The human capacity for caring,” *American Psychologist*, 45(1990), pp. 336-346; L. Wispè, *The Psychology of Sympathy*(New York: Plenum, 1991).

85) David Hume, *op. cit*(1980) p. 415.

86) *Ibid*, p. 423.

87) *Ibid*, p. 424.

투영시킨다면, “쉬운 공감 및 호응하는 정서는 (혈연)관계, 친숙, 유사성”⁸⁸⁾에서 보다 활발하게 작용한다.

감정에 대한 흠의 분석은 공감감정의 감정적 작용원리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프레스톤과 드 발이 PAM 이론을 통해 제시하는 공감감정의 작용원리도 이와 유사하다. 공감감정은 “주체와 객체가 더 가까워지고 더 유사해질수록”⁸⁹⁾ 쉽게 작동한다. 이는 곧 공감감정의 작용이 ‘근접성(proximity)’, ‘유사성(similarity)’, ‘친숙성(familiarity)’⁹⁰⁾에 기초한다는 의미이다. 이 세 가지 속성의 강도에 따라 “피실험자의 지각이 객체의 지각과 합치되는 운동신경적(motor) 반응들과 자율반응들 [가령 심박동수, 피부전도도(傳導度), 얼굴 표정, 신체 자세 등에서의 변화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더 쉬워질 것”⁹¹⁾이다. “이 활성화는 피실험자에게 객체의 “내막으로” 들어가 객체의 느낌과 필요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체현(embodiment)이 다시 동정심, 연민, 도움을 배양”⁹²⁾하는 것이다.

드 발은 공감감정이 ‘근접성’, ‘유사성’, ‘친숙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속성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세 속성이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공감감정의 작용에 관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공감작용의 속성은 ‘근접성’이다. ‘유사성’, ‘친숙성’은 공감작용을 보다 ‘생기’ 있게 만들지만, 근접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감감정의 상호 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접한 대상은 멀고 어렵듯한 대상보다 우세한 영향력을 갖는다.”⁹³⁾ “우리가 멀리 떨어진 국외자들과 공감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⁹⁴⁾도 근접성의 공감작용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앞에 현전하는 공감작용의 상황적 맥락에서 ‘유사성’과 ‘친숙성’은 공감작용을 배가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근접성’의 전제하에 ‘유사성’과 ‘친숙성’은 공감감정에 ‘생생함’을 부가

88) *Ibid*, p. 354.

89) Frans de Waal, *op. cit*(2006b), p. 37.

90) Frans de Waal, *op. cit*(2009), p. 221.

91) Frans de Waal, *op. cit*(2006b), p. 37.

92) *Ibid*, p. 37.

93) David Hume, *op. cit*(1980), p. 428.

94) Frans de Waal, *op. cit*(2009), p. 221.

하는 역할을 한다. 흄은 “우리가 우리의 친지나 (혈연)관계에 대해 품는 감정을 다루면서 이런 감정에 수반되는 매우 진기한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⁹⁵⁾ 또한 “방탕한 사람은 자연히 방탕함을 좋아하고, 진지한 사람은 진지함에 대해 애착을 갖는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유사성을 느낄 때”⁹⁶⁾ 보다 감정작용이 강화된다. “우리는 같은 문화적 배경, 민족적 특색, 나이, 성, 직업 등을 가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더 쉽게 일체감을 갖고, 배우자, 자식, 친구들 같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는 훨씬 더 쉽게 일체감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일체감 형성은 공감의 기본적 전제조건이다.”⁹⁷⁾ 친숙성도 유사성과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는데, “거리나 건물만이라도 친근감이 들면 거부감을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정반대의 감정으로 변화”된다. 또한 “정신은 잘 알지 못하는 대상보다는 자신과 친숙한 대상을 더 선호한다.”⁹⁸⁾

드 발이 공감의 감정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감의 신체적 기인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제시한 맹자의 ‘제선왕의 소에 대한 동정’ 이야기는 사실 공감의 근접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야기는 이렇다. “왕이 궁궐을 지나 끌러가는 소를 보고 있었다. 왕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제례에 쓰일 소의 피가 필요해 소가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왕은 소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소를 살려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제례를 폐하는 것은 원치 않아 왕은 양을 대신 희생으로 쓰라고 제안했다.”⁹⁹⁾

드 발은 “왕께서는 소는 직접 보았지만, 양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맹자의 답변에 주목하며, 맹자가 공감의 기원에 관해, 그리고 공감이 얼마나 신체적 연관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성찰하도록 만들었다고 평한다. 드 발이 강조하는 이 ‘공감의 신체적 연관’과 더불어 왕이 소를 ‘직접 보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양은 직접 현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관념 속에서 제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맹자의 답변은 공감감정의 근접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자는 금수에게서 그것이 살아 있음을 직접 보지만 그것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을 차마 견디지

95) David Hume, *op. cit*(1980), p. 355.

96) *Ibid*, p. 354.

97) Frans de Waal, *op. cit*(2009), p. 80.

98) David Hume, *op. cit*(1980), p. 354-355.

99) Frans de Waal, *op. cit*(2009), p. 220.

못하여, 그 죽는 소리를 들으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지는 도살장과 부엌(slaughter-house and cook-room)을 멀리하는 것입니다.”¹⁰⁰⁾

위 ‘제선왕의 소에 대한 동정’ 이야기는 이와 같이 공감작용의 ‘근접성’을 설명하는 전형적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공감작용의 근접적 속성이 갖는 의미는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위 제선왕의 사례는 근접성을 충족시키지만, 유사성·친숙성의 속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예이다. 인간이 아닌 소라는 점에서 유사성과 거리가 있고, 왕이 키우던 정든 소가 아닌 낯선 소라는 점에서 친숙성과도 거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보자면, 공감작용 속성의 핵심인 ‘근접성’은 우리 오감의 능력 범위에서 작용하는 물리적 거리를 전제하지만, ‘낯선 자’(말발굽에 밟힐 위기에 처한 낯선 자)를 배제하지 않고, ‘종(種)(제례를 위해 끌러가는 소)을 초월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공감이 이성적 사유가 아닌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신체적 연관들로부터 기인하는 감정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여기서 이 타자는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동물 사이,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공감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장된 의미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 도덕적 선을 향한 잠재능력인 공감감정은 ‘종’을 초월하여 작용¹⁰¹⁾하고, 검투사적 투쟁원리와 대척점에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

100) *Ibid.*, pp. 220-221.

101)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례는 인간과 혹등고래라는 다른 종(種) 사이에서 전개된 일이다. “2005년 12월 어느 추운 날 암컷 혹등고래 한 마리가 개잡이 그물에 엉킨 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발견되었다. 그 고래는 15피트나 되었다. 구조팀은 입과 꼬리를 비롯해 곳곳에 엉킨 그물 때문에 애를 먹었다. 그물이 고래의 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고래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속으로 들어가 그물을 자르는 것이다. 잠수부들은 한 시간 동안 물속으로 들어가 그물을 잘랐다.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고래의 꼬리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어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잠수부들의 위험을 감수한 노력 덕분에 마침내 고래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고래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큰 원을 그리며 주변을 맴돌았고, 조심스럽게 모든 잠수부에게 일일이 다가가서 코를 비벼댔다. 잠수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차례로 인사를 다 했다. 잠수부로 참여했던 모스키토(James Moskitto)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그 고래는 마치 우리 도움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애정 충만한 개가 당신을 사랑스럽게 보는 것처럼 내 앞에 멈춰 서서 나를 톡톡 치고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다. 이 경험은 내 평생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Ibid.*, pp. 129-130.

할”¹⁰²⁾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이 도덕적 단초는 ‘확충’과 ‘수신’을 통하여 공감능력으로 화(化)해 “가까운 데서 멀리로 향하는 ‘추은(推恩)’의 원리”(공자)로 확장되어감으로써 도덕적 선을 수행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공감’이 도덕철학 내에서 갖는 중요성을 시작으로, 인간 본성에 본유하는 ‘공감’감정을 주로 현대공감이론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계몽철학과 공맹철학의 공감도덕론을 현대 공감이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영장류 학자인 드 발의 공감이론을 중심으로 공맹철학을 조망하면서 기존 공맹연구를 통해서 접하지 못했던 공맹철학의 도덕철학적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첫째, 인간 본성에 기반한 공감도덕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공맹철학이 갖는 공감도덕론적 가치를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 의도를 풀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 드 발이라는 영장류 학자의 현대공감이론을 활용하였다. 드 발의 공감이론을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았던 의도는 공맹철학에 대한 선입견, 즉 시대적 구태의 오명을 일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영장류 연구를 포함하여 드 발이 섭렵하고 있는 현대경험과학 연구성과들을 수단으로 하여 공맹의 공감도덕론을 다양하게 조망해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논의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드는 생각은 좀 더 총괄적 맥락에서 거시적인 조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후의 연구과제로 두 가지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데, 첫째, 서구 공감도덕론과 관련한 부분이다. 특히 흄과 스미스의 공감 개념의 명료한 비교와 평가가 추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흄의 직접감정·간접감정·단순감정·복합감정·감흥인상·반성인상 등과 같은 정교한 분석을 공감감정의 범주로 일목요연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흄이 공감감정과 달리 구분했던 사랑이나

102) M. L. Hoffman,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0(1981), pp. 121-137.

미움, 긍지와 위축감 등은 공감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해명될 수 없는 감정의 범주들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이 의구심을 이 글에서 보다 발전시켜 다루지는 못했다. 또한 스미스의 관찰자 관점을 통해 문학 분야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공감이론적 해석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영장류 연구와 서구 공감도덕론과 공맹철학의 결합이라는 다소 버거운 설명 틀이 자칫 흐트러져 논점을 분산시킬 우려가 앞섰고, 더 크게는 필자 역량의 한계 때문이었다.

둘째, 본문에서 일부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맹철학의 보다 거시적 조망을 통해 드 발의 논지와 비교, 검토를 통해 드 발의 논지를 넘어서는 정신사적 저력을 밝히는 작업이다. 특히,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공맹철학에서 공감감정을 선한 도덕적 행위를 위한 '단초'로 보고, 확충과 수신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이나 드 발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영역이다. 또한 공감감정의 작용속성(근접성, 유사성, 친숙성)에서 제시한 해석 또한 드 발의 논의를 넘어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줄리안은 지금까지 자신의 역사 속에 은폐되어왔던 서양의 도덕 연구에 '대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맹자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줄리안에게 맹자사상이 익숙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던 측면을 조망하도록 이끌어주는 새로운 자극제였다면, 필자는 역으로 줄리안의 연구를 통해 동양에서 공맹철학이 그동안 서구주의에 취해 홀대받아왔거나, 아니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천착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왔음을 깨달았다. 드 발이 영장류 연구로부터 철학과의 통섭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멀리 돌고 돌아 기원전 죽편에 기록된 공맹철학을 접하고 이보다 자신이 더 동의할 수 있는 논의는 없다고 고백한 사실은 공맹철학의 잠재력을 확인케 해준 최대의 찬사이다.

부족하나마 이 글이 서구 공감이론과 공맹철학, 공맹철학과 현대공감이론의 통섭적 연구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한편의 글로 공맹철학의 전반적 재조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없는 일이다. 향후 통섭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서로 다른 학문체계를 공통의 토대 위에서 고찰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이나 학술 언어적 개발이 부가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동서양의 비교철학적 연구를 연계하는 것은 한층 더 복잡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는 방대한 미개척 영역에

새로운 이론적 모색을 시도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과제로 남겨진 연구영역들을 보완해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병곤, 「Adam Smith의 도덕과 정의」. 『평화연구』 제19권 2호, 2011, 225-256쪽.
- 이상호, 『사단칠정 자세히 읽기』. 글항아리, 2011.
- 최재천, 『호모심비우스』. 이음, 2011.
- 토머스 헉슬리 저, 이종민 역, 『진화와 윤리』. 산지니, 2012.
- 프란스 드 발 저, 황상의 역, 『정치하는 원숭이』. 동풍, 1995.
- _____, 김소정 역, 『보노보』. 새물결, 2003.
- _____, 황상의·장대익 역, 『침팬지 폴리틱스』. 바다출판사, 2004.
- _____, 박성규 역, 『원숭이와 초밥 요리사』. 수희재, 2005.
- _____, 이충호 역, 『내 안의 유인원』. 김영사, 2009.
- _____, 김희정 역, 『영장류의 평화 만들기』. 새물결, 2007.
- 프랑수아 줄리앙 저, 허경 역,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 루소, 칸트』. 한울, 2004.
- 황태연, 『공자와 세계』 제1-5권. 창계, 2011.
- _____, 〈독서노트 V : Empathy〉. 미간행, 2012.
- 李載浩 精解. 『孟子正義』. 솔출판사, 2006.
- 朱熹, 『孟子集註』. 明文堂, 2002.
- 朱熹 集註(林東錫 譯註). 『四書集註諺解 孟子』. 學古房, 2006.
- Bohart, A. & Greenberg, L., et. al., *Empathy Reconsider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7.
- Damasio, A.,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ew York: Putnam, 1994.
- Smith, Adam, Edited by Knud Haakonssen,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Etlesen, Arne, *Perception, Empathy, and Judgment*.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4.
- Baston, C. D., "How social an animal? The human capacity for caring." *American Psychologist*, 45, 1990, pp. 336-346.
- Darwin, Charles,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In: *Charles Darwin, Evolutionary Writings*. Edi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James A. Secord.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Wolpert, D. M., et al., "Perspectives and Problems in Motor Learning." *Trends*

- in Cognitive Sciences* 5, 2001, pp. 487-494.
- Premack, D. and Woodruff G., "Does the chimpanzee have a theory of mind?" *Behavioral & Brain Science*, 4, 1978, pp. 515-526.
- Hume, David,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with an Analytical Index by L. A. Selby-Big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 *Political Essays*, Edited by Knud Haakonsses, Cambridge · New York ·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Menzel, E. W., "A group of young chimpanzees in a one-acre field." In *Behavior of Non-human Primates*, A. M. Schrier and F. Stollnitz(ed.), vol. 5,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pp. 83-153.
- De Waal, Frans, "Appendix B: Do Apes Have a Theory of Mind." In Stephen Macedo and Josiah Ober(ed.), *Primate and Philosopher: How Morality Evolv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 69-73.
- , "Morally Evolved-Primate Social Instincts, Human Morality and the Rise and Fall of 'Veneer Theory'." In Stephen Macedo and Josiah Ober(ed.), *Primate and Philosopher: How Morality Evolv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 1-58.
- , *The Age of Empathy: Nature's Lessons for a Kinder Society*. 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09.
- Rizzolatti, G. & Sinigaglia, C., translated by F. Anderson, *Mirrors in the Brain—How Our Minds Share Actions and Emo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Rifkin, Jeremy, *The Empathic Civilization*. New York: Penguin Group, 2009.
- Agosta, Lou, *Empathy in the Context of Philosoph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 Wispè, L., *The Psychology of Sympathy*. New York: Plenum, 1991.
- Hoffman, Martin,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Iacoboni, M., *Mirroring People*. New York: Picador, 2008.
- Michele Stolte, *The Ethics of Care and Empat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7.
- Hoffman, M. L.,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0, 1981, pp. 121-137.
- Kitcher, Philip, "Ethics and Evolution: How to Get there from There." In Stephen Macedo and Josiah Ober(ed.), *Primate and Philosopher: How Morality*

- Evolv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 120-139.
- Wrangham, Richard W. & Peterson, Dale, *Demonic Males: Apes and the Origins of Human Violence*. Boston: Houghton, 1997.
- Preston, S. D. & de Waal, F. B. M., "The communication of emotions and the possibility of empathy in animals." In *Altruistic Love: Science, Philosophy, and Religion in Dialogue*, S. G. Post, L. G. Underwood, J. P. Schloss, and W. B. Hurlbut(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284-308.
- Dimberg, U., "Facial Electromyographic Reactions and Autonomic Activity to Auditory Stimuli." *Biological Psychology*, 31, 1990, pp. 137-147.
- Dimberg, U., Thunberg, M., & Elmehed, K., "Unconscious facial reactions to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Psychological Science*, 11, 2000, pp. 86-89.
- Gallese, V., "The 'Shared Manifold' Hypothesis: From Mirror Neurons to Empathy." E. Thomson(ed.), *Between Ourselves: Second-Person Issues in the Study of Consciousness*, Thoverton, UK: Imprint Academic, 2001, pp. 33-50.
- Ramachandran, V. S., "MIRROR NEURONS and imitation learning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great leap forward" in human evolution," *Edge 69*, 2001, Available at From the Third Culture: http://www.edge.org/3rd_culture/2012/02/23 검색.
- Prinz, W. and Hommel, B., *Common Mechanism in Perception and A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국 문 요약

공감은 스코틀랜드 계몽철학 이래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 글은 공감을 주제로,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철학 이래 전개되고 있는 공감도덕론의 현대적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흄과 스미스의 공감 개념은 다윈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통섭적 공감이론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현대공감이론 연구자 중 세계적 영장류 학자인 프란스 드 발의 통섭적 공감이론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각-행동 연계 메커니즘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는 드 발의 통섭적 공감이론 성과는 공감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드 발의 통섭적 공감연구가 공맹철학의 현대적 재조명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이 글은 18세기 공감도덕론의 주요한 흐름과 쟁점을 제시하는 한편, 서구 영장류 학자의 최신에 공감이론을 통하여 공맹철학의 도덕론적 가치를 새롭게 조망해보고자 한다.

투고일 2012. 3. 20.

수정일 2012. 5. 4.

게재 확정일 2012. 5. 17.

주제어(keyword) 공감(sympathy), 상상력(imagination), 공맹철학(the Confucian and Mencian Philosophy), 통섭(consilience), 데이비드 흄(David Hume), 애덤 스미스(Adam Smith)

